FTA와 계육산업

한·EU, 한·미 FTA가 계육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최 세 균 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나라 축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95년 닭 사육수는 8,600만 마리에서 2009년 1억 3,900만 마리로 60%나 증가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육계 생산액은 연간 2조원을 넘어 우리나라 농산물 가운데 생산액 규모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쌀, 돼지, 한우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으로 성장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140만 두까지 감소했던 한육우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 두 이상이 되었고, 돼지는 1천만 두를 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시련에 직면해 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축산 질병의 확산으로 축산업 및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축산업 강국인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의 FTA라는 위협요인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하여 45개국과 FTA를 체결(또는 협상타결)했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등 농업 강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FTA가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가거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성장하고 있는 우리 축산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시장개방 확대로 육류 수입 증가, 자급률 하락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대표적인 육류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로 볼 수 있다. 지난

해에 소비된 이들 육류는 대략 200만 톤 정도이다(공급량 기준). 돼지고기가 100만 톤, 쇠고기와 닭고기가 각각 44만 톤과 48만 톤으로 보면 된다. 우리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찾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 5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육류가 닭고기이며, 육류 가운데 자급률이 가장 높다. 닭고기 총 공급량 48만 톤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쇠고기의 수입산 비중은 55%에 달한다.

국내 공급량 200만 톤 가운데 국내산은 133만 톤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만 톤 가까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국산 공급량은 20만 톤인 반면 수입산은 25만 톤으로 자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돼지고기도 30만 톤 이상이 수입되어 국내 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산 육류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육류의 자급률은 2000년 79%에서 2009년 74%로 감소했다.

2. FTA로 입는 계육산업의 피해 커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축산 농가에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FTA는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이미 관세가 낮아지고 있다.

FTA 협상은 주로 수입장벽을 낮추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 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동식물검역, 규격, 표시, 인증 등)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물에 대한 수입장벽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기 때문에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된다. 곡물류의 관세율을 보면, 보리 299.7%, 옥수수 328%, 대두 487% 등이다. 과일류의 관세율은 대략 45% 수준이고, 고추, 마늘, 양파의 관세율은 각각 270%, 360%, 135%에 달한다.

반면 쇠고기의 관세율은 40%, 돼지고기 관세율은 25%, 닭고기 관세율은 20% 수준으로 보면 된다. 가장 강력한 수입 규제에 속하는 것이 동식물검역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인데, 우리나라에 육류를 많이 수출하는

〈표 1〉 우리나라의 육류 수입 현황(2009) (단위 : 천톤)

구분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공급량(C=A+B)	480	1,030	443
생산량(A)	409	722	198
수입량(B)	71	308	245
수입비중(B/C)	14.7%	29.9%	55.3%

※자료 :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과, 배 등 과일의 경우 수입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FTA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축산업에 집중된다. EU와의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생산액 감소는 약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등 축산업의 피해가 94%를 차지한다.

닭고기의 피해는 관세가 철폐되는 해를 기준으로 연간 331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농업부문 피해액 3,060억원의 11%가 닭고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 · EU FTA의 최대 피해 산업으로 볼 수 있다. EU와의 FTA로 인한 생산액 감소는 돼지고기 1,214억원으로 전체 생산액 감소의 40%를 차지한다. 다른 농산물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위, 토마토, 포도, 감자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는 미미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축산업과 과수의 피해가 각각 전체의 66%와 24%를 차지한다. 결국 축산업과 과수산업의 피해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양돈보다 한육우 산업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큰 품목이 닭고기이다. 사과, 배, 감귤, 포도 등 과일류의 경우 피해 규모가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품목은 없다. 채소와 곡물 가운데에서도 1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다. 그러나 닭고기의 생산액 감소는 관세철폐 시점을 기준으로 1,087억원에 달한다. 유럽연합 27개국과 맺은 FTA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3배 이상되는 규모이다. 한육우의 생산액 감소는 4,438억원, 양돈의 생산액 감소는 2,065억원으로 예상되었다.

3.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에 대비할 때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의 56%(최근 3년

〈표 2〉 한 · EU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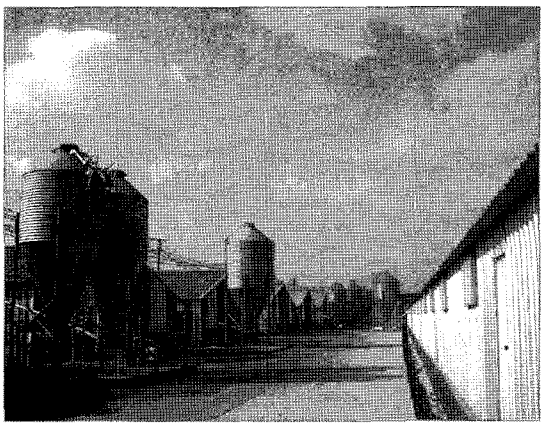
품목	5년차	10년차	15년차
돼지고기	556	1,214	1,214
닭고기	161	277	331
낙농	97	419	805
쇠고기	121	394	526
기타(축산물 이외)	100	152	184
계	1,035	2,456	3,060

평균)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미국산의 비중이 60% 가까이로 증가했다.

닭고기 수입은 2005년 4만 6천 톤에서 2010년 9만 3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닭고기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국가는 브라질, 미국, 유럽연합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닭고기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문제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로 인한 계육산업의 피해는 유럽연합 전체 27개국과의 FTA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계육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브라질은 아직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4.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국내 대책 활용

FTA로 인한 시장개방의 파고를 딛고 계육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차별화를 위한 투자와 기술발전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 · 미 FTA 대책으로 21조원의 투융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의 FTA 대책으로 2조원을 축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의 대부분이 축산업에 집중되기 때문

〈표 3〉 한 · 미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추정 결과

구분	5년차	10년차	15년차
쇠고기	1,040	2,463	4,438
돼지고기	1,640	2,065	2,065
닭고기	589	1,087	1,087
유제품	297	430	430
기타	91	143	173
소계	3,656	6,187	8,193
총계(축산물 이외 포함)	6,785	9,912	12,354

에 국내대책의 대부분도 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FTA 지원대책을 활용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술개발, 유통시설 현대화, 표시제 및 이력추적제 등이 확충된다면 우리 계육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FTA 보완대책의 성공 여부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시설투자 등 소위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분뇨처리시설 두 가지 사업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인력개발, 기술개발, 제도개선 및 적용(이력추적제, 방역, 동식물검역, 유통) 등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어느 산업에 있어서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그 산업발전을 결정짓는 핵심이고, 새로운 시설과 기술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 · 미 FTA 보완대책 가운데 후계농 육성 및 교육 훈련에 투자되는 것은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수입산과의 차별화는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국산 닭고기의 안전성, 신선도, 기능성 등을 보강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점점 더 첨단 기술과 최신 시설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보완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한 · 미 FTA 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가 2017년까지 연평균 2조 원의 투융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성공여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보완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최대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계획, 집행, 사후관리,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보완 및 수정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표 4〉 닭고기 주요 수입국(물량기준) (단위 : 톤)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2008~2010)	
총계	46	61	44	58	62	93	71	100.0%
브라질	1	16	23	21	30	34	28	40.2%
미국	21	40	20	34	29	55	39	55.7%
EU	24	43	2	3	2	3	3	3.8%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kati.net)